

‘미스바구국기도회’ 나라 위해 기도!

14일(주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NAP 철회 촉구

2만여 성도 함께 기도

국가인권기본계획안(NAP) 철회를 촉구하는 총칭 권연합(대전·충남·충북·세종) 미스바구국기도회가 지난 10월 14일(주일) 오후 3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열려 나라의 바른 미래를 위해 교회의 존립을 위해, 정상적인 윤리·도덕을 부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가정과 기독교를 해체하려는 차별금지법 등 잘못된 법률 제정을 절대로 반대한다며 한 목소리로 국가인권기본계획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구국기도회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이은대 목사(그리스도교회총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학삼 목사(충북기연 대표회장의 대표기도, 김철민 목사(대전기독교연합회 부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마 5:13-16 말씀을 본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박경배 목사(한국정직운동본부 대표)와 임공열 목사(세기연 대표회장의 회개기도가 있었으며 남승재 목사(네스트클럽의) 헌금기도, 현수동 목사(세기연 총무)의 광고, 박성웅 목사(기침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의 순서를 마쳤다.

곧바로 이어진 2부 순서는 이준호 목사(세기연 증경회장)의 사회로 특별기도가 시작되어 지현아 집사



(텔북작가)가 ‘북한인권’, 신소걸 목사(성순도 회장)가 ‘안보경제’, 주명갑 목사(통합, 충남노회장)가 ‘난민정책’, 박근상 목사(대전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가 ‘차별금지반대’, 박복수 목사(세기연 고분)가 ‘바른 학교 공교육’을 위해 주제를 인도했다.

이어 한익상 목사(전안 바른인권위원장)가 동성 기도회를 인도하며 위기에 처한 나라와 기독교를 위해 참석자들과 합심해 기도한 후 이성수 목사(전안

성시회운동본부장)가 마무리 기도했다.

이어 전종서 목사(충남기독교총연합회장)가 ‘성명서 낭독’을 한 후 1호 차량과 2호 차량을 선두로 세종시 거리를 행진하며 반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동성애의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나라의 바른 미래를 위해 정상적인 윤리·도덕 교육과 차별금지법 등 잘못된 법률 제정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질서 정연하게 행진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신사참배 회개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오도(誤導)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국가와 북한 인권을 위하여 기도할 때이다.

2018년 10월 28일 광화문 사거리, 한국교회 일천만 기도대성회(신사참배 80주년 회개 및 31운동 100주년을 위하여라는 대형광고(10월 11일, 15일)가 나왔다 신앙인들에게 ‘회개’하고 ‘기도’하자는 합당한 이유라면 무슨 다른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신사참배 80주년 회개’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이는 자칫하면 한국교회를 오도하고 성도들에게 그릇된 신앙을 갖게 하는 동시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해를 고착시킬 수 있게 되어 매우 염려스럽다.

먼저 신사참배의 역사적 문제다. 일본제국주의는 식민지 우리 국민들의 정신까지도 빼앗기 위하여 마지막 남은 종교인 기독교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의도로 일본 귀신을 모신 신사(神)에 참배하는 일을 확립하였다.

일제는 기독교계를 향한 위력(威力)과 회유를 계속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장로교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헌병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1938년 9월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기결 하도록 온갖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신사참배를 적극 반대하던 한상동 목사, 주기철 목사 등의 인사들은 이미 총회 수개월 전에 구속시키고 총회 당일에는 차경한 총으로 무장한 헌병대가 회의장을 포위하고, 회의장 내에는 사복경찰이 총회 총대들 사이에 끼어 앉아서 삼엄한 위압적 분위기를 펼치

는 가운데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때 몇 명의 목사 총대들이 각본대로 신사참배 안건 발의, 동의·재정을 하는 가운데 당시 총회장 홍택기 목사의 불법회의 진행(가)만 묻고 ‘부’를 묻지 않음으로 불행하게도 ‘신사참배안건’은 순식간에 가결된 것이다.

당시 총대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경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여도 이는 한국기독교 역사의 치욕이며 크나큰 죄악이다. 당시에 불과 10여명의 총대들이 기획하고 주도하여 일제의 강압 속에서 불법적으로 가결된 것이지만 총회에서 가결되었다는 것이 분명하고 이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이며 한국 교회 역사에서 큰 오점(汚點)으로 남는다.

이 치욕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1961년 안동중앙교회에서 회집된 제39회 총회에서는 신사참배 가결을 공식적으로 취소하고, 이들에 걸쳐서 신사 참배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이로써, 총회가 결의한 것을 총회에서 풀었으며 당시 총대였던 이들나 교인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으며 또한 회개한 것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사참배 80주년 회개 기도회’를 갖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속죄원리>에 맞지 않는다. 범죄가 공적인 범죄는 공적으로 회개해야 한다. 개인적 범죄는 그 범죄자 개인이 회개하면 된다. 신사참배 가결을 공적인 범죄이기에 총회에서 공적으로 취소결의 하였으며 회개한

일이다.

또한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번 공개적으로 회개한 적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회개는 하나님의 속죄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회개해야 용서가 된다는 것인지 이번 기도회를 기획하는 이들이 말해 줄 수 있겠는가?

둘째는, 신사참배는 강제와 불법에 의한 결의였으며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순교한 이들이 수십 명에 이르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일제에 구속된 이들이 수천 명에 이른다. 이 분들의 순교와 헌신은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는 말인가? 일제가 교회에 가한 만행에 대하여는 문제 제기도 없으며 또한 조상의 범죄를 후손들이 계속 회개해야 하는가에 문제가 생긴다.

성경은 ‘아버지가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디고 합은 아찌됨이니라’고 하셨다(레미야 31장 에스겔 18장). 80년 전, 신앙의 선조들이 신사참배를 한 것이 ‘오늘 너희가 만난 일들과 무슨 상관이냐? 너희가 만난 문제는 너희의 죄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아닌가?

셋째는, 후자들은 말하기를 그러면 금년 ‘한국교회 일천만 기도대성회’(신사참배 80주년 회개 및 31운동 100주년을 위하여)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이들에게 ‘왜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는 회개하지 않는가?’라며 조롱하고 있다. 하나님께 하는 회개가 이벤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는, 기도회의 구성에 있어서 한국교회 교단과 단체와 기관, 그리고 유력한 인사들을 총망라하지

했는데 여러 단체와 기관, 인사들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울음’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어찌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이런 일을 강행하려는가? 이 같은 행태에 의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사실이 이와 같은데 ‘한국교회 일천만’ 성도를 운운하면서 성경적·신학적 원리와 역사적 사실을 간과한 채 오도(誤導)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 시점에서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할 것은 어느 때 보다도 엄중한 남북의 문제와 국가가 잘되기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딤후 2:2)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떤 이유, 어떤 환경에서도 철회받을 수 없는 인권이 심각하게 박해 받고 있는 북한 현실의 문제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이다. 북한의 인권은 생사의 문제이다.

국제오픈도아선교회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종교박해 실태는 지난 17년간 부동(不動)의 세계 체위(地位)에 기록되어 있다. 왜 한국교회가 이런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이 시점에서 신사참배 80주년 회개 기도회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많다.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각종 법안 제정의 문제와 동성애 문제, NAP 문제, 불법난민문제, 가짜뉴스 논쟁 등을 위하여 기도할 때이다. 그야말로 하나 되어, 선한 싸움을 해야 할 때이다.

또한 무서운 범죄, 자발적이고 큰돈을 들여 행사를 치르고 받아들이는 종교다원주의, WCC의 배교 행위도 이참에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이다. 사실과 실상이 이와 같은데 몇 사람에게 의하여 급조된 기도회는 무슨 숨은 의도가 있는가를 의심하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정중하고 간곡하게 제안한다. 한국교회의 신사참배 범죄 문제는 이미 절치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회개하였고, 625 전쟁과 북한의 끔찍한 박해 등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한국교회 일천만 성도 신사참배 회개 기도대성회’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주제와 내용을 우리 자신의 죄 회개와 교회와 국가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기도로 바꾸기를 바란다.

아니면 그 행사 자체를 전면 취소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교회의 또 다른 분란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며, 그 결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멋있는 성도의 모델이 됩시다.’



조용목 목사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 11:8~10, 13~16)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멋있는 성도’입니다. 멋있는 성도의 본보기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하여 기록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여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든 성도가 됩니다. 또한 한 난이 복이 되고, 고난이 영광이 되며, 시련이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든 성도가 됩니다.

다음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삭과 야곱에 대하여 기록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9절과 10절에 기록되기를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비웠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는 성도의 나그네 인생으로서의 올바른 삶의 태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모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그 약속의 성취를 추호도 의심치 않았습니 다. 그 약속들이란 구세주가 세상에 오실 것과 그를 믿고 구원 받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한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얻을 기업과 상속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여주시고 신령한 은사를 풍성하게 주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육체의 부활입니다. 우리도 이들을 본받아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환호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땅에서는 외국인인 나그네로와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인 나그네로 여기고서 살았을 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큰 재산가인데 왜 견고하고 화려하며 큰 집을 짓지 않고 천막에서 살니까?”라고 물으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곧 떠나야 할 외국인이며 나그네입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셋째, “저희가 나옴에 본향을 생각하였던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신자일 때보다 환경적으로 곤란을 더 겪는 일이 있을지라도 천국을 향해 날마다 가고 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넷째,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매우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성이 우리 주 예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인생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외국인인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항상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멋있는 성도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니다!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2018 교단장 총무 취임감사예배’

지도자협, 한국교회 지도자들 연합과 일치, 변화와 개혁 다짐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 상임회장 김진호 목사, 상임총무 김탁기 목사)는 지난 10월 11일(목)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코리어나호텔에서 ‘2018년 교단장 총무 사무총장 취임감사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변화와 개혁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모인 지도자들은 한국교회와 우리사회의 타락이 교회지도자들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통감하고, 지도자들부터 회개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신신목 목사는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각 교단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병들고 고장난 한국교회를 고치고 개혁하는 것임을 알아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부 예배는 지도자협 대표회장 신신목 목사의 사회로 루터대 전 총장 김해철 목사의

기도, 지도자협 이사 정일채 장로의 성경봉독, 북경연결음악대학원 총장 육석진 교수의 특송, 지도자협 공동회장 김동권 목사의 ‘뽕힌 지의 충성’이란 제하의 설교, 지도자협 상임총무 김탁기 목사의 광고, 서울기독대 명예총장 최윤권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기독교가 가짜뉴스의 온상인가…한기연 성명서

불순한 의도로 기독교계 이용 절대 용납할 수 없어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이하 한기연)이 최근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에 대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독교계가 마치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주변인양 지목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1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기연은 성명서를 통해 “편악 정부가 먼저 이런 사회병리학적 원인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근본적인 치유책을 내놓기보다 나와 노선과 입장이 다른 개인과 집단을 적폐세력으로 치부해 입을 틀어막아 보겠다는 근시안적이고 구태적인 대응에 골몰한다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에도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여론을 분열시킨 이른바 ‘가짜뉴스’의 사회적 국가적 폐해를 분명히 목도한 바 있다.”면서 “과거 광우병사태 때 했던 것처럼 어느 누구든 똑같이 해도 된다는 불순한 의도로 기독교계를 이용하려 한다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한기연은 “목적지 아무리 선해도 방

범이 악하면 그것은 죄이며,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최근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에 대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독교계가 마치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주변인양 지목한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벌에 처하라”고 검경에 주문하였다. 이는 얼마 전 모 언론이 에스더기도운동본부 ‘가짜 뉴스 공장’으로 지목한 보도 이후에 나온 것으로, 우리는 이것이 동성애, NAP,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 온 기독교계에 대한 보복성 유포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가짜뉴스’가 무엇인가. 정치적, 경제적 이익 또는 제마나 이슈를 풍자하거나 비판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사실처럼 가짜뉴스 기사 형식으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

이다. 그런데 기독교계가 과연 무슨 목적으로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말인가.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아딘가 불안정하다는 증거이다. 만약 정부가 먼저 이런 사회병리학적 원인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근본적인 치유책을 내놓기보다 나와 노선과 입장이 다른 개인과 집단을 적폐세력으로 치부해 입을 틀어막아 보겠다는 근시안적이고 구태적인 대응에 골몰한다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우리는 과거에도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여론을 분열시킨 이른바 ‘가짜뉴스’의 사회적 국가적 폐해를 분명히 목도한 바 있다. 따라서 과거 광우병사태 때 했던 것처럼 어느 누구든 똑같이 해도 된다는 불순한 의도로 기독교계를 이용하려 한다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목적지 아무리 선해도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회 현안과 국가정책 대응 방안 모색

미래목회포럼, “목회자들에게 걸린 세금 농어촌 교회에 지원금으로 가야”

미래목회포럼(대표 김봉준 목사, 이사장 정성진 목사)은 지난 10월 11일(목) 오전 7시 30분 프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제58차 조찬 간담회 및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미래목회포럼 회원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 정책자문위원들이 참석해 각각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전 대표 박경배 목사의 기도에 이어 이사장 정성진 목사의 환영인사, 대표 김봉준 목사가 모두 발언 시간을 통해 임기동안 진행해온 미래목회포럼 행사를 소개했다.

김봉준 대표는 “농어촌 교회와 주일강단 교류를 10월 말에 진행해 직접 농어촌 교회의 실상의 경험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교회와 MOU 맺고 지역 특산물 구매하는 방법을 통해 실제적으로 교회 재정에도 도움 주고 목회에 활력을 줘야 한다”며 “물건을 구매하고 그 적립금액을 교회 리모넬링이나 건축에까지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어야 진짜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종교인 납세 시대에 (목회자들에게) 걸린 세금이 농어촌 교회에 지원금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러면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에 대한 갈등을 잠재울 수 있고 목회자들이 세금을 납세하는 부담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사장 정성진 목사는 “한국교회가 시국

에 맞추어서 북한선교를 하면 안된다”며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세로 북한선교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시기에 해야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80%의 새터민이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오지만 이중 15% 남짓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현실이다”며 “새터민 3만 2천명과 5천만 명의 남한 국민 공동체가 물과 기름처럼 분리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진단했다.

기독교제모습찾기 제12회 전국대회

예총연, 교회본질 회복위해 뜨겁게 기도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대표회장 강용희 목사/이하 예총연)이 주최하고 기독교교회모습찾기협의회(회장 남윤국 목사/이하 기교협)가 주관한 ‘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 제12회 전국대회’가 지난 10월 4일 오전 10시 30분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기독교관

에서 열려 교회의 본질회복에 협의회가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요 13:34-35)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번 전국대회는 성령의 뜨거운 숨결이 담긴 삼동찬양단의 찬양과 경배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동행교회 부회장 정창태 목사(사회로 시작 된 대회에서 회장남윤국 목사는 대회를 통해 “아려운 시기일수록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을 얻어 영적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전국대회를 통하여 여기에 모인 우리의 심령이 기도함으로 거역져서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사회에 선한영향력을 나타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총연 이사장 유영선 목사는 수 4:19-24 말씀을 본문으로 한 ‘길갈의 은혜를 체험하라’라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종을 알아차리는 길갈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예총연 식구들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국제독립교회연합 정인찬 목사 총회장에 취임

“명예가 아닌 명예로 섬길 것” 새창조교회 설립2주년 감사예배

사단법인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총회장 정인찬 목사 취임식이 지난 9월 30일(주일) 오후 4시 용인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2층 새창조교회에서 열렸다.

사무총장 임우성 목사(암구정에수교회)

의 인도로 드린 예배는 서기 김동성 목사(존원교회)의 대표기도와 부서기 정기영 목사(희망을노래하는교회)의 성경봉독, 새창조교회 가브리엘찬양대의 찬양, 설립자 박조준 목사(전 영락교회 담임)의 설교 순서로 진행

됐다. ‘나라를 고치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한 박조준 목사는 “엘리아의 손바닥만 한 구름처럼, 진리는 커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이것이 확장되어 나간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존재가 그렇다”면서, “1만5천교회 가진 교단도 있지만 하나도 부럽지 않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가 비록 작지만, 이 나라를 고치는데 한 부분을 담당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박조준 목사가 총회장 정인찬 목사에게 취임패를 전달하고, 정인찬 총회장이 총회장 취임 및 축하예배 인사말씀을 전했다.



몽기총 사역 몽골 전역으로 확대(몽골기독교총연)

노방전도용 강대상도 제작 보급…몽골 복음화 고무적

몽골복음화를 위한 몽골기독교총연합선교회(이하 몽기총 / 법인대표 김동근 장로)의 강대상 제작, 전달 운동이 몽기총이 위치한 울란바트르 시를 넘어 툽하이막, 헨타이이막, 우문고비이아막 등 몽골 전역으로 확대되어 몽골 복음화에 불을 붙이고 있다.

더욱이 몽골지역 목회자들의 사명을 일깨우고 열정을 되살리는 계기로 작용해 지금까지 없었던 길거리(노방) 전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몽기총은 그 실천에 힘을 더하기 위해 전도용 강대상을 특별 제작했다. 군산성민교회 김호연 목사 등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제작된 전도용 강대상은 지난 4월 울란바트르시 교계를 대표하여 바양주르흐코보이만 목사와 나이던 목사를 통해 전달했



다. 또한, 축구장 두 배 크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동용 충전식램프로 전달했다.

몽기총용 강대상은 몽골 각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몽골 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되었다.

몽기총 관계자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이루고 있는 일기에 보람이 크다.”면서 “주님의 일에 몽골복음화에 더욱 더 쓰임 받는 몽기총이 되겠다.”는 각오를 피력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정통총회 54주년 정기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는 지난 9월 17일 오전 11시 구로동 평안교회에서 제54주년 정기총회를 맞아 기념 축하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각종 회무를 은혜 가운데 처리하고 정기총회를 마쳤다.

이날 예배는 상임총무 임정태 목사 사회로 부총회장 이영춘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총회장 양정섭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양 목사는 골 1:7-8 말씀을 본문으로 ‘목회자의 4대원칙’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배워 실천한 사도바울과 에바브라처럼 우리도 진실하신 주님을 본받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실한 동역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2부 정기총회에서는 한성욱 목사(인천노회장)의 기도와 전대식 목사(서기)의 총대보고에 이어 양정섭 목사(총회장)가 정회장 취임 및 축하예배 인사말씀을 전했다.



족수가 되므로 개회를 선포했다. 회의록서기 최은희 목사를 임명하여 회의내용을 기록하게 하였다. 전 회의록 보고와 사업보고, 재정보고, 각 노회보고, 임원회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결의했다.

임원선거에서는 총회장 양정섭 목사를 비롯해 부총회장 김흥룡 목사, 이영춘 목사, 김인호 목사, 양정은 목사, 한세진 목사가 유

임되고, 상임총무 임정태 목사, 총무 박평원 목사, 부총무 임세준 목사, 협동총무 김두경 목사, 감대하 목사가 유임되고, 서기 전대식 목사, 부서기 민경구 목사, 회의록서기 최은희 목사, 부회의록서기 이영숙 목사가 선출되었으며, 회계 김영의 목사, 부회계 김병섭 목사, 감사 한성욱 목사, 이순례 목사는 유임되었다.

예장총회, 총회장·임원 취임예배

“한국교회 연합 일치에 힘쓰겠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 정성진 목사) 제103회기 총회장 및 임원 취임감사예배가 지난 10월 2일 오전11시 여전도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려 한국교계를 위한 연합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감사예배는 부총회장 최원걸 목사의 사회로 부총회장 서상운 목사의 기도, 서기 황세한 목사의 성경봉독, 샘성악양상들의

특송, 증경총회장 엄인형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엄인형 목사는 사 43:1-3 말씀을 본문으로 ‘특별히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 취임하는 정성진 총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 가운데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 목사는 또 “총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대령권자”라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매사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들이 되여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감사예배는 또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나라와 민족과 정치경제 안정을 위해’ 남북대회 증경대회장 김관태 목사가, ‘103회기 총회·대회·노회·지교회를위하여’ 서남부대회 대회장 이정은 목사가, ‘동성애자별금지법과 이슬람보치를위하여’ 동북대회 증경대회장 강태민 목사가, ‘한국교회연합과 일치제를위하여’ 중부대회 대회장 조완형 목사가, ‘총회신화 신학교 성장과 발전을위하여’ 한남대회 대회장 김상민 목사가 기도를 인도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한반도 평화 위해 기도

제67차 총회 제6회 임원회

교단 총회(총회장 임웅재 목사) 제67차 총회 제6회 임원회가 지난 10월 15일(월) 오전 11시 다사랑교회(담임 이정진 목사)에서 열려 북한주민의 인권, 안보와 경제, 이슬람 유입, 나쁜 차별금지법 공교육의 위기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활동하기 좋은 수확의 계절을 맞아 더욱 복음전파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남·북·미 관계가 잘 조정 되어서 혼란한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해 기도해 합할 것을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회계 조병희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재부 이은승 목사의 기도, 총무 신재영 목사의 설교 및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이날 오전 4:2 말씀을 본문으



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같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며, 심지어 견고한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신재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의 장 임웅재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서기 이

경진 목사의 회원점명, 임웅재 목사의 개회 선언 후 총무보고사항이 이어졌다.

총무보고사항으로 2019년도 목사고시 대상자 오리엔테이션, 2018 전국사모연합회 단합대회, 은목위원회 모임 등의 내용이 보고되었다. 이어 재부 이은승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조병희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임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역자소전 보고, 제67차 총회 지방회장 실행위원 변경 승인 건, 은목위원회 회칙인준 건 등이 결의 및 토의되었다.

기타사항으로 인천지방회 조정안과 세계 하나님의교회 선교위원회 참석, 2019-2020년도 달력 제작,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33차 정기총회 개최 건, 제67차 총회 3회 실행위원회 준비 사항 등을 점검했다.



가을 목회자부부 체육대회 개최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이성석 목사)는 지난 10월 9일(화) 영남동지방회 가을목회자부부 체육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신흥섭 목사의 사회로 지방회장 이성석 목사의 설교, 증경회장 최용운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예배 후 배구경기를 시작으로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를 진행해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누었다. 갈릴리교회(담임 김은수 목사)의 수고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마친 후 배구경기



의 시간을 가지며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지방회원들의 후원과 찬조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로 지방회원 모두 즐거운 시

간을 갖고 사우나로 피로를 푼 후 저녁식사까지 함께 하고 지방회장 이하 임원들의 수고에 격려하며 다음 월례회를 기약하고 헤어졌다.

월례회 갖고 가을 야유회 위해 기도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10



월 2일(화) 순복음반송교회(담임 한순남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부산우리교회)의 사회로 한순남 목사의 대표

기도, 회계 서미근 목사(순복음비전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암 7:7-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영적다림줄'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한석현 목사(순복음소망교회)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한명진 목사(은혜와평화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간단히 2부 회무처리를 한 후 반송교회에서 제공한 식사를 함께하고, 커피숍에서 차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가을의 풍성한 속에서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목회의 정보를 교환하며 권면하고 가을 야유회 때 만나기로 약속하고 아쉬움을 뒤로하고 각자 사역지로 돌아갔다.

은퇴목회자 위로 격려 의견 모아

은목위원회 첫 모임

교단 은목위원회(위원장 유승창 목사) 조직과 세부회칙 마련을 위한 모임이 지난 10월 8일(월)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열려 회칙제정을 위해 회칙내용을 점검하는 한편 은퇴목회자의 예우에 대하여 살펴보고 평생 목회활동에 헌신해 온 은퇴목회자를 위로 격려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위원장 유승창 목사의 인도로 증경총회장 박영찬 목사의 대표기도, 유승창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유 목사는 시 133: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형제가 연합하여 아름디운



형상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로 힘쓰는 은목위원들이 될 것을 강조했다.

예배 후 곧바로 열린 회의에서는 미리 준비한 은목위원회 회칙 초안을 함께 세밀하게 살펴 보면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수정하고 보완하는 토의과정을 거쳐 수정보완된 회

칙안을 마련하고 다음번 모임에서 조정하여 확정짓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정보완한 은목위원회 회칙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과 서기를 두고 후원금과 회비로 운영되는 것을 기본 골자로 모임의 규모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조정도 가능하게 했다.

제 40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연합기도회’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최정식 목사)는 지난 10월 2일(화) 오후 7시에 목양제일교회에서 제 40회 목회자기도회를 가졌다.

이번 40회 기도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연합기도회'로 광주지방회의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 모여 기도하였다.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광주지방회 소속된 교회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이날 기도회는 회장 최정식 목사의 사회로 직전총회장 김양인 목사가 행 1:4-14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를 회복하자'라는 제하의 설교를 전했다. 이날 설교를 통해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명지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하게 하는 결단의 시간이었음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서 국정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하여 증경회장 김정식 목사의 기도와 총회와 지방회를 위하여 부회장 이영애 목사의 기도 에 이어서 회장 최정식 목사의 대통령과 국무위원 및 위정자를 위하여 그리고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철폐와 실행을 막기 위하여, 또 한국교회의연합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특히 한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이 여겨 주셔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에 부

흥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이어서 증경회장 주덕영 목사의 축도로 이어 기념촬영을 하고 10월 23-25일까지 광주지방회 부부 수양회에 참석한 대상자들과 간단한 예비모임을 갖고 동월 9시 10분에 은혜로운 모든 순서를 마치고 아쉬운 이별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 야유회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김영준 목사)는 지난 10월 2일(화) 오전 11시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야유회를 가졌다.



이날 회원들은 야유회에 앞서 예배를 드렸다. 수목원 본관 앞에 모여 지방회 총무 정진학 목사(태전시랑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도명수 목사(동해안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 증경회장 강태진 목사(안동성곡교회)의 말씀으로 이어졌다.

강 목사는 뱀전 1:6-9 말씀을 본문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의 삶이냐? 아니면 영원토록 책망과 수욕과 비참한 삶이 되느냐는 이 세상 살 동안 결정되므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임을 깨닫고 주님을 본받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목회자가 되자"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지방회장 김영준 목사(갈릴리온소망교회)의 인사와 광고에 이어 증경지방회장 신재영 목사(새강천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뒤 백두대간 수목원을 관람하였다.

이 시간에는 목회 현장에서의 경험담 등을 함께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장소를 옮겨 영주시로 나와 저녁식사를 하고 각지의 목양지로 향하였다.

“해외 선교지 확대…지속적인 교회 설립” 감사

세계선교연합회 회원들, 평택성전에서 기도회

은혜와진리교회 세계선교연합회는 평택성전에서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기도회는 선교위원장 권영호 장로의 사회로 평택성전 김진태 장로의 기도, 지난 8월에 열린 제2회 창년 IMCR 대회의 영상보고, 평택성전 창년

봉사선교회와 축복성가대의 찬양, 그레이스 앤 트루스 미션코어어의 특송, 정필석 목사의 설교 순서로 이어졌다.

회원들은 은혜와진리교회가 세계 광역한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

여 일선교회 설립 목표를 이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은혜와진리교회와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사역을 위해, 현지 선교사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는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남녀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에 신청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담당자만 볼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의 비용도 없습니다. 본교회 성도는 물론 본교단 산하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 센터(안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 ④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 ⑤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 (www.gnt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5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5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생명의 말씀



한명점 목사

· 부산지방회 중경회장
· 부산신학교 학장
· 은혜와평화교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 동산에 거처를 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담 동산이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형통한 그리고 만족한 삶을 누리는 곳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해방시키려고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주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구태어 우리를 여기에서 해방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항변합니다.

출애굽의 중요한 정점은 ‘짚과 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에게 억눌려 노예생활을 하면서 늘 배고프고 삶에 구속을 당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삶은 아니었

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살게 하려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형통한 삶 자체에서 형통의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 못지않게 형통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고 성을 망치 하나 사용하지 않고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 속에서 모세 못지않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기도로 하늘의 해와 달을 머물게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 가나안 원주민 일곱 족속을 전부 멸해버리고 열 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고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삶에 고난과 역경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맛있게 이루는 형통의 삶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형통은 육신의 부귀영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막힘없이 멋지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생애 속에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꿈을 소유한 자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3-4절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노니 곧 광야와 이 레 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헛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모세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믿음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낙심에 빠졌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네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모세와 비교해 보니 상대가 안되었습니 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준비된 사람이요 자기는 준비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본문 3절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

한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비결의 첫째는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활동합니다. 꿈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참고 견디어 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꿈이 없으면 무기력해집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 밖으로 꿈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되는 대로 살다’ 가면 되지, 편안하게 살다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야단스럽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이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내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분이 가지고 계신 내에 대한 기대와 꿈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서 그것을 비전 회화하 합니다. 나의 꿈으로 만들어야 합니

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루고자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후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가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기고 성도 무너지게 하시므로 확실히 이루게 후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행 9:15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꿈을 받고 도저히 불가능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고난도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꿈, 내일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놀지 않습니다. 인위하게 살지 않습니다. 인생을 자신의 삶으로 살지 않고 최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적인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꿈이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세계 지도를 펼쳐 놓고 3가지 표어를 내 걸고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 후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도에게서 선교사역을 감당한 선교 거목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꿈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꿈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얻고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 행하게 하시니라’(빌 2:13)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사는 자는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는 삶을 살자

(수 1:1~9)

“장기기증 서약을 통한 생명의 결실 기대”

전국 7곳 교회서 ‘생명나눔예배’…300여 성도 장기기증 희망등록 참여

지난 10월 14일(주일) 전국의 7곳 교회에서는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이웃 사람의 실전을 결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성도들은 장기기증 서약을 통해 생명 나눔을 다짐하며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소망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송천교회(담임 윤여민 목사)가 설립 60주년을 맞아 장기기증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08년에도 50주년을 기념해 장기기증 서약을 진행한 바 있는 송천교회는 10년 만인 이날 1, 2부 예배를 생명나눔예배로 드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눴다.

윤여민牧사는 “6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세상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넓혀가기를 소망한다”며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을 통해 아름다운 생명의 결실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말씀에 이어 장기기증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장기기증 서약 안내를 받은 성도들은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깨닫고 적극적인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다. 그 결

과 133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을 서약했고, 장기기증 서약 연령을 낮추기 위한 제2회 개선 서명운동에도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여하며 지지를 표했다.

같은 날 부산에서도 생명 나눔의 물결이 이어졌다.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센텀장로교회(담임 이효성 목사)는 생명나눔예배를 진행해 51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했다.

주일 2, 3부 예배 중 진행된 서약식에서 이효성 목사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강조하며 서약에 참여할 것을 권면했다.

부산진구에 자리한 부암교회(담임 문영환 목사) 역시 창립 67주년 기념 감사예배에서 서약식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민간 최초 아동보호 기준선 제안

아동보호 체계와 기준, 종합적 연구보고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발전을 위해 민간단체 최초로 서울대학교 사회 복지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책임연구원:서울대 사회 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10월 8일 밝혔다.

19대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던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장·단기적 계획이 담겨 있으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준선이 제시됐다.

이번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 연구’에서는 예산, 인프라, 체계 지면, 실천과 관련된 총 10가지 과제가 도출됐다.

특히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수립 과제들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별, 위탁기관별로 아동보호서비스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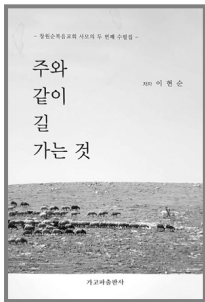
이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마련되는 ‘아동보호’ 관련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해 아동보호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조했다.

또한,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례 특성에 따른 차등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창원순복음교회(권우석 목사) 성전 증축을 위한, 이현순 사모 두 번째 수필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발간에 즈음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순복음교회 권우석 목사의 아내 이현순입니다.

저희 교회는 2003년에 성전건축 1차 공사(150평)를 하였고, 이번에 성전 완공을 하기 위해 증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성전건축 완공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신앙 서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말씀 Q/T, 신앙수필, 간증, 기도문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문은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에 유익하고, 전도용과 양육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유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낙심하여 믿음을 떠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군대가 된 것처럼,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이 깨어나길 날마다 기도하며 글을 썼습니다.

책을 읽으시고 작은 은혜라도 되었다면 1만원의 성전건축기금을 부탁드립니다.

책을 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기도로 보답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이 현 순 올림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81번길 27(창원순복음교회)

- T. 055) 237-5907, H.P 010-2246-5905

※ 계좌번호 ●농협 821143-55-000262 (예금주 : 창원순복음교회)

귀한 헌신으로 시골마을 교회가 세워지도록...

전남 무안군 해제면 순복음은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름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닥에 물이 차올라 성전 재건 축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전남 무안갯벌에서 염전을 하는 안수집사님께서 건축재정을 위해 '무안 천일염'으로 헌신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무안 천일염'의 판매수익금을 새 성전 건축에 보태어 만민이 예배하는 성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성전 건축에는 아직도 많은 도움과 후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귀한 헌신으로 시골마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기도와 함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민풍염전에서 생산한 100% 무안갯벌 천일염으로 각종 미네랄과 유기물이 풍부한 친환경 갯벌입니다. 갯벌염전은 청정해역의 바다물을 끌어들이고, 햇빛과 바람에 의해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품질이 매우 우수하며 안전합니다.



구입문의 010-8060-1141

계좌 농협 628-02-097358 예금주 왕상엽

인천 퀴어반대 대책본부, 퀴어축제 측 보도자료에 반박 성명

“이성에 중시하는 평범한 국민들 생각 바꾸려 하지 말라”

국민들은 알고 있다. 퀴어축제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세대간 벽을 만들고 서로를 증오하게 만드는 축제라는 것을 말이다.

인천퀴어축제

인천 퀴어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요 언론사에 배포한 영문 보도자료에 대해, 인천 퀴어반대 대책본부에서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고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촉구했다. 다음은 반박 성명서 전문.

인천 퀴어반대 대책본부(Incheon Anti Queer Operation, 이하 인천대책본부는 인천 퀴어축제 조직위원회(Incheon Queer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이하 퀴어조직위)의 언론사 보도자료용으로 SNS에 올린 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1. 퀴어조직위는 근거 없는 자료를 통해 에이즈의 주범이 동성 간 성관계, 특히 남성 간 성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퀴어축제를 정당화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자료를 확인한 바 HIV 감염자의 90% 이상이 남성 간성관계를 주로 하는 동성애자를 통해 감염되었으며, 급증하는 AIDS의 주범은 남성 간 동성애자를 통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정직하게 공표하여 동성애자들을 HIV 감염에서 보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퀴어조직위는 모든 종류의 성폭력에 반대한다며 언론에 수시로 평화축제라고 홍보했지만, 9월 8일 퀴어축제 현장에서 퀴어 축 참가자들이 어머니,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나이의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어른들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차켜세우고 큰소리로 쌍욕을 퍼부으며 일부 여성 학부모를 향해 '네 얼굴을 기억하겠다', '발길 조심해라' 등 저주에 가까운 폭언과 인신공격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를 경험한 여성 학부모는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한 퀴어조직위는 퀴어축제가 벌어지는 장소마다 지역 주민들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는데도, 반성의 기미 없이 성소수자를 내세운 자신들만의 권리만 주장하는 편협함을 보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권리는 일질 중요하지 않다는 내로남불의 자태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해 측 축제마다 경찰을 노비 부리듯 자신들을 보호하라고 경찰에게 명령하고, 인천 북광장에서는 간부급 경찰을 불러 선생이 학생을 체벌하듯 20대 초반 퀴어조직위 여성이 50대 경찰에게 고래고래 소리치는 모습을 보았다. 공권력이 양비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이며, 막부개내 퀴어행사를 보호하기위해 1,000명이 넘는 경찰까지 동원되었다.

자신들의 행사를 보호하라며 생떼를 부리는 브레이크 없는 광란의 축제를 위해, 언제까지 공권력을 동원하여 세금을 낭비해야 하는가. 퀴어조직위는 이성이라는 집단이라면 광란의 파티를 중단하라. 대한

민국은 예의와 법절을 중시하는 동방예의지국임을 잊지 말라.

3. 퀴어조직위는 행사의 규모에 맞게 동네 작은 체육관을 빌려 행사를 치르라. 매년 행사시 성소수자라고 해 봤자 200-300명 정도 참가하고 대부분은 자신들이 성소수자인 듯한 코스프레를 하는 청소년 참가자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왜 모든 시민이 사용하는 광장에서 축제를 벌이려고 하는가?

तो요일 황금시간대 광장은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장소이지, 특정인과 특정단체가 독점하는 곳이 아니다. 굳이 하려면 동네 체육관에서 성소수자들끼리 모여 행사를 치르고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 매너와 양심이 있는 성소수자를 만나고 싶다.

4. 막부개내 막기와 식의 퀴어축제를 강행하는 퀴어조직위 집행부에게 요구한다. 차랑 퍼레이드를 중지하라. 성소수자가 마치 국민의 영웅이라도 되는 듯, 퍼레이드를 하면서 기괴한 옷차림과 상반신 탈의 후 속옷 차림으로 차랑에 올라가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 과연 자랑할 만한 문화인가? 퀴어축제 측이 이러한 행위가 행사의 꽃이라고 주장한다면, 직언하겠다. 꼴사납고 망측하고 해괴하며 미친 것이니 중단하라.

성소수자여서 인정받고 싶다면, 본인들 스스로 자제하고 벌인 내 탓에 괴성과 발레벗은 모습을 건강한 시민들에게 보여주지 말라. 퀴어 축 어린 참가자들끼리 주고받은 대화가 생각난다. '내가 이곳에 온거 우리 엄마 알면 나뉘제.'

성소수자를 앞세운 가짜 인권 코스프레를 중단하고, 이들 뒤에 숨어 각종 이권을 챙기는 집행부와 정당, 그리고 인권단체, 변호사 집단 등이 광란의 축제를 멈추라.

우리의 불쌍한 청소년들은 이들이 벌여놓은 불꽃전지를 보고 물러든 불나방처럼 이용당하고 있다. 권력집단으로 변질된 퀴어조직위는 가면을 벗고 국민들에게 민낯을 보이라.

성해방(sexfree)을 외치는 것이 마치 타락한 권력에 항거하는 영웅처럼 보이고자 하는 'Hero 코스프레'를 멈추라. 퀴어 축이 늘 외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구호처럼, 더 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성소수자들은 여차 코스프레를 중단하라. 퀴어는 권력집단이 되었다.

5. 혐오, 혐오, 혐오세력 퀴어조직위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다. 성소수자를 반대하면 무조건 혐오 세력으로 낙인찍힌다.

최근에는 성소수자가 다다수의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들을 반대하면 혐오세력으로 몰고 간다. 건강한 상식을 가진 종교인과 단체의 국민들을 적체

로 몰고 있고, 일부 미디어들도 부화뇌동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에 성소수자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앞세운 퀴어 집행부와 일부 인권단체들은 다양성을 보장하라고 외치면서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단체나 시민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편협함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성소수자가 법적으로 억압이나 탄압 받은 적이 없다. 최악의 인권 탄압국가인 북한에서 대한민국처럼 동성애자가 광장에서 축제를 한다면, 북한이 과연 축제를 인정할 것 같은가? 또한 동남아 일부 이슬람국가들은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면 집에서도 잡혀갈 수 있는 문화를 가진 곳이다.

대한민국은 성소수자라 해서 잡아가지도 않고 처벌하지도 않고 평범한 국민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을 다누리고 있다. 이태원과 홍대에 LGBTQ 관련 카페, 술집, 모임이 즐비해도 절대 경찰이 시비걸지 않는 나라이다.

도대체 무슨 법적인 차별을 받았는가? 만약 이성 간 성관계를 중시하는 국민들에게 성소수자의 퀴어(사전적 의미 이상한, 기괴한)한 성행위에 대해 사회적·문화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원한다면, 성소수자들이 먼저 국민들의 마음을 단게 하는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와 축제를 중단하라.

국민들은 알고 있다. 퀴어축제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세대간 벽을 만들고 서로를 증오하게 만드는 축제라는 것을 말이다.

마지막으로 "생각의 차이는 토론 대상이지 차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을 퀴어 측 인천지역연대가 발표한 성명서가 생각한다. 본인들 스스로 한 말을 실천하기 바란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성소수자를 미워하지 않는다. 누구나 언제든 마주칠수 있는 이웃이라고 생각하기에, 차별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성소수자라는 코스프레로 이상애를 중시하는 편협한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 하지도 말라. 권력 집단처럼 행세하지도 말라.

성소수자를 이해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 생각의 차이를 성소수자 본인들 스스로 인정하라. 본인들을 반대하는 자를 혐오 세력이라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꾀변을 늘어놓지 말라.

천부인권 중 가장 기본이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이다. 상대방의 감정까지 통제하려는 퀴어 주최측의 성정치(sex politics)를 중단하라.

인천퀴어반대대책본부

[성명서]

가짜뉴스의 주범인 한겨레신문사를 엄중 수사하라

한겨레신문사가 “동성애·난민혐오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라는 제목의 기사를 지난 9월 27일 한겨레신문에 게재하였다.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지목한 22개중에는 다수가 동성애에 관련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이 지목한 동성애에 관한 가짜뉴스의 대부분은 가짜가 아니라 사실로 밝혀져, 오히려 한겨레신문이 ‘가짜뉴스’의 진짜 온상임이 드러났다.

이낙연 총리는 2일 국무회의 가운데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거론하면서, 가짜뉴스 제작자뿐만 아니라 유포자도 엄중 처벌하고, 정부 각 부처는 가짜뉴스 발견 즉시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겨레신문이 가짜뉴스라고 낙인찍은 대부분은 내용의 진실여부를 본인들이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고, 인터넷에 있는 다른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또한, 한겨레신문사가 가짜뉴스의 운영 및 배포자와 지명된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근거도 없이 단순히 기계적 프로그램을 돌려 나온 수치만 가지고, 한겨레신문사는 실명을 거론하며 가짜뉴스의 운영 및 배포자와 매장하였다.

이것이야말로 한겨레신문사가 전형적인 가짜뉴스의

온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겨레신문사가 지목한 가짜뉴스의 다수가 동성애 관련 내용이었고, 동성애 관련 가짜뉴스의 운영 및 배포자로 지목된 많은 사람들은 교수,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이다. 전문가들을 가짜뉴스 운영 및 배포자로 지목하는 것은 전문가들에게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가짜뉴스의 운영 및 배포자로 지목된 전문가들이 한겨레신문사에 전화하거나 메일을 통해서 가짜뉴스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가질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하거나 아직까지 답이 없다. [한겨레신문 가짜뉴스 피해자 모임]은 한겨레신문사는 물론 이를 보도한 기자 개인 모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것처럼, 정부와 관계기관은 불소한 의도를 가지고 언론의 권력으로 가짜뉴스를 대량 제작하여 개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혼란케 하는 한겨레신문사를 즉각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8. 10. 3

한겨레신문 가짜뉴스 피해자 모임

월드뷰티핸즈 서울시 대흥동과 업무협약 맺어

마을축제에 ‘K-뷰티로 멋진 모습을 찾아서’로 참여

국제뷰티구호개발 NGO 세월드뷰티핸즈(WBH 이사장 장한일, 회장 최에스터)는 지난 10월 13일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주민센터(동장 민옥래)에서 주관한 대흥동 마을축제에 참여해 ‘K-뷰티로 멋진 모습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뷰티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날 뷰티서비스에는 최에스터 교수(신한대학교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 교수)를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학생들과 장한일 이사장(WBH), 장민혁 사무총장이 함께해 헤어스타일링,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다양한 뷰티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는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특별히 이날 오전 월드뷰티핸즈와 대흥동주민센터는

뷰티서비스 업무협약(MOU)을 맺고 어렵고 소외된 대흥동 지역 어르신들을 비롯한 다문화, 한부모 등 다양한 소외계층에게 뷰티서비스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팔레 마포구의회 의장, 김상훈 시의회 교동위원장, 이민식 마포구의원, 남현 주민자치 위원장이 참석했다.

최에스터 회장은 “그동안 월드뷰티핸즈의 중점 사업인 서울역 노숙자와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뷰티서비스 활동을 점차 확대시켜 대흥동을 비롯한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도 뷰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 활동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지금,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와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주민의 인권/안보와 경제/이슬람 유입/나쁜 차별금지법/공교육의 위기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구한말에는 국민을 깨우는 계몽운동을 시작하여 독립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민중을 계몽하기 위하여 언론이라 천대받던 한글을 체계화하고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하여 해방 후 우리나라의 국문으로 자리잡게 하였습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에는 국내 외에서 3.1운동 등 독립운동을 지속하였습니다.조선을 일본인화하려는 신사참배 강요에 목숨을 바쳐서 저항을 했습니다. 이에 일본제국은 조선인을 신화하지 못하여 조선 청년들을 징병해가는 것을 1944년까지 지연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조선 청년들이 일본의 전쟁터에서 희생되는 것과 전범국 취급 당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해방 후에는 북한 공산당의 압제를 경험하고 남한한 기독교인들이 남한의 공산주의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하므로 1948년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건국되도록 하였으며, 한국전쟁 당시에는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 큰 희생을 치루면서 북한군과 맞서 싸웠고, 종전 후에는 많은 고이들을 세계의 교회들과 협력하여 돌보고, 입양보내며, 국내외 빈민들을 돌보는 구호를 하였었습니다.

60년대에는 박정희 정부가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등교육을 위하여 기독교 중고등학교들을 활용하기를 원할 때 피해를 감수하면서 협력하여 대한민국이 근대화되는데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요람이 된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70년대에 월남전에서 기독교가 군인에게 주는 유익함을 확인한 박정희 대통령은 '신앙전력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평시에 병사들의 군생활에 적응하고 사고를 낮추는 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공산화와 김일성의 재 남침 의도에 대하여 방공대세를 확립하였습니다.

80년대에 김일성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섞여서 민주화를 가장하여 학생들을 현혹할 때에도 교회는 기도하였고, 90년대 초반 구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지므로 막연하게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던 많은 학생들이 현실을 깨닫고 이들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 내에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교회는 국가를 놓고 늘 기도했으며, 이에 필요한 인재들과 영향력과 자원을 사회에 제공했으므로, 기독교인 인구의 1%에 불과하였던 때부터 지금까지 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적 위기의 시대인 지금에 대전/충남/충북/세종시 4개의 광역지자체 기독교총연합회는 행정수도 세종시에 모여 다음을 정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잘못된 차별금지정책의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기독교는 혐오집단이라며 타협이 없다"는 발언을 한 황의석

법무부 인권 국장을 해임하라. 동성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HIV환자로 전락시킨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과 전선미 여가부장관을 해임하라.

동성애와 이슬람을 반대하면 3천만원 벌금, 3년 징역형을 추진했던 김부겸 장관을 해임하라. 동성애와 이슬람의 문제점에 대한 주장을 기독교발 가짜뉴스라고 허위보도한 한겨레의 기사 후에 사실관계 확인 없이 처벌을 지시한 이낙연 총리와 종교단체가 만든다고 단정하고 처벌법 제정을 주장한 박성기 법무 장관은 사과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와 공무원, 이를 유통하는 포털 사이트 처벌법'을 제정하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이용한 대북지원을 하기에 앞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 실태 개선을 담보하라.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는 북한주민과 기독교인들을 해방하고 교문과 강제구금 중단을 조건으로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유럽에서 무분별한 이슬람 이민과 난민 수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난민 수용이 아닌 현지 지원으로 난민 구호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현행 교과서에서 기독교의 기여를 축소하고, 이슬람 등은 과대 반영하는 등 잘못된 교과서의 집필을 수정하고, 기독교 학교를 특수목적교로 분류하여 선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해체하려는 획일화 정책을 중단하며, 학생들에게 섹스를 권리화 하고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교사와 연장자에게 순종적이지 않은 비교육적 태도를 가르치는 나쁜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시켜라.

하나, 지금 한국은 최고의 위기 국면상황이다. IMF 때보다 더 심각한 경기상황과 관세부과와 한미FTA 개정으로 국내 산업의 위기, 북한이 비핵화 미이행시 전쟁 발발의 위험, 북한과 남북연방제 추진으로 하나의 국가가 될 때에 한국도 테러지원국인 북한 취급을 당하며 국민과 기업들이 당하게 될 불이익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정은 독재정권과의 사랑에 눈이 멀어 국민의 이익을 도외시키는 정책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10월 14일

대전광역시기독교 총연합회, 충청남도기독교 총연합회, 충청북도기독교 총연합회, 세종시 기독교 총연합회 일동

야유회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만끽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신동숙 목사)는 지난 10월 8일(월) 바쁜 일과가운데 함께 하여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소금산길26에 위치한 원주소금산출렁다리 산행에 나섰다.

가정과 교회에서 각조별로 회원들은 출발하였으며 오전 9시 30분에 일차적으로 덕평 자연휴게소에 집결을 하였다. 그리고 점심식사 장소인 삼삼막국수 식당으로 이동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선교회(담임 정미자 목사)에서 후원하여 삼삼막국수 보쌈, 전 등으로 풍성한 오찬을 나누었다.

함께 교제와 담소를 나누었으며 약

30~40분쯤 걸어서 소금산출렁다리에 도달하고 건너서 정상까지 산행을 했다.

울창한 고목이 조화를 이루고 절벽이 병풍처럼 관광지를 감싸고 있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이곳에 약200미터 길이의 출렁다리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과 즐거움을 주는 곳이었다.

회원들은 이곳을 산행하면서 즐거운 시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느꼈다. 회원들은 아름다운 산 펼쳐진 출렁다리와 함께 스마트폰에 담아 기념 촬영을 했다.

산행을 마친 후 하산하여 커피점에서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고 인근 매운탕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나눈 후 각자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갔다.



통일전망대 찾아 북한복음화 위해 기도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탁정진 목사)는 지난 10월 16일(화) 상암동 및 파주시 일대에서 하반기 야유회를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만끽하였다.

이날 오전 9시 파주공설운동장 주차장에 모인 회원들은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상암동으로 이동하여 월드컵 경기장을 관광하고 하늘공원 역사물 축제에 참석해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후 회원들은 다시 자리를 옮겨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7번길5-5에 위치한 장작철관구이집에서 점심 식사를 즐기고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369에 위치한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아 북녘 땅을 바라보며 북한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제67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7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18년 11월 12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거로 참석여부를 11월 1일(목)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0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임 웅 재
총 무 목사 신 재 영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내역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2018 정기총회

일시 2018년 10월 26일(금) 오전 11시

장소 은혜와진리교회 영등포성전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89-1(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2번출구)

임원명단

△고문: 조용목 목사(예하성)	△대표회장: 정덕화 목사(예장합동보수진리)
△고문: 최보기 목사(기침)	△회장단: 회원교단 22인 총회장
△고문: 배기은 목사(예장호현)	△사무총장: 김용도 목사(기침)
△고문: 배진기 목사(예하성)	△서기: 박찬목 목사(예장합동보수)
△고문: 이준원 목사(예장합동총신측)	△부서기: 김동민 목사(예장동신)
△고문: 김상용 목사(예하성)	△회계: 권오성 목사(예장연합오순절교회)
△고문: 최상열 목사(예장동신)	△부회계: 천점수 목사(예장합동)
△고문: 윤덕남 목사(기침)	△감사: 이상익 목사(예장연합오순절교회)
△고문: 임종달 목사(예하성)	△감사: 구쌍희 목사(예장개혁합동)
△고문: 이용주 목사(예하성)	
△고문: 정부용 목사(예하성)	

가입교단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총회장: 안희복 목사, 총무: 조원희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
총회장: 임용재 목사, 총무: 신재영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진리)총회
총회장: 배재한 목사, 총무: 이상용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호현)총회
총회장: 신용철 목사, 총무: 도용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진리)총회
총회장: 정덕화 목사, 총무: 최달영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신측)총회
총회장: 김병근 목사, 총무: 최철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합동)총회
총회장: 박점순 목사, 총무: 구쌍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총회장: 이 위 목사, 총무: 유종근 목사
대한예수교연합오순절교회총회
총회장: 강문중 목사, 총무: 권오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동신)총회
총회장: 최상열 목사, 총무: 김동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성목총회
총회장: 황상호 목사, 총무: 최천봉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영신총회
총회장: 김혜순 목사, 총무: 조영금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명희 목사, 총무: 천점수 목사
대한예수교오순절하나님의성회총회
총회장: 이동진 목사, 총무: 최인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수도)총회
총회장: 김외탁 목사, 총무: 한정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은혜)총회
총회장: 김태진 목사, 총무: 송계바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
총회장: 홍복두 목사, 총무: 박영출 목사
한국HIM선교총회
총회장: 홍정식 목사, 총무: 박호중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진리총회
총회장: 박태영 목사, 총무: 김은실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개혁총회
총회장: 이동진 목사, 총무: 최인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푸른빛)총회
총회장: 김호기 목사, 총무: 김영철 목사
세계선교연대총회
총회장: 박용옥 목사, 총무: 최요한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THE COUNCIL OF CHRISTIAN DENOMINATIONS IN KOREA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32 라이프콤빌딩 811호
TEL : (02) 786-1601~4, FAX : 782-8095
http://www.ccdk87.com, ccdk87@komnet.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고문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교단총회장



임용재 목사
총회장

지도고문



김인안 목사
증경총회장

지도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별교회

부흥사회 회장



신재영 목사
새긴교회

부흥사회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재주한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18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전총회장	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회장	상임위원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상용 목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의교회)	진동용 목사 (세소인교회)	김용덕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종달 목사 (진주은혜진리교회)	최광덕 목사 (일신은혜교회)	이창재 목사 (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조남영 목사 (가평순복음교회)	김양인 목사 (목양제일교회)	임용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김인찬 목사 (청신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별교회)	엄기철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신재영 목사 (새긴교회)	임영환 목사 (연천순복음중교회)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상임부총무	상임부총무	사무국장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오승욱 목사 (천안서복교회)	황용연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병복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정석현 목사 (평강교회)	백영자 목사 (북동순복음교회)	신동숙 목사 (순복음임계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김기진 목사 (대전순복음연합교회)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천교회)	김마을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정평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조선남 목사 (대림별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행복교회)	박홍열 목사 (오성사랑교회)	성기찬 목사 (동문산순복음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원종교회)
서기	재무	회계	감사	감사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교회)	양은혜 목사 (청조교회)	김종현 목사 (은혜교회)	최남성 목사 (동강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진주은혜교회)	권택선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김현옥 목사 (형북한선교회)	이화숙 목사 (전주순복음우리교회)	임영철 목사 (순복음승리교회)	홍현자 목사 (서광과평교회)	조병희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정관우 목사 (순복음빛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열방교회)	서법석 목사 (가나안영성교회)	옥보에 전도사 (소망농악교회)	정예스더 목사 (해수영기교회)	김남수 목사 (빛은빛교회)

회원



최승수 목사
(순복음소망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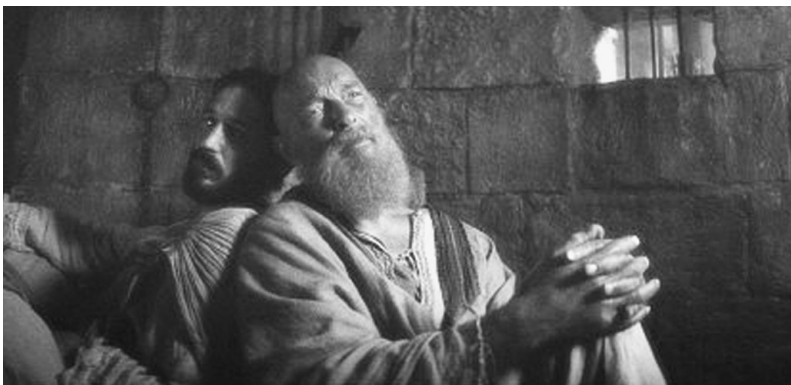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문의|

회장 신재영 목사 HP : 010-7457-9768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영화 ‘바울’ 비신자 전도에 적극 추천



성경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정
그리스도가 부활한 지 약 30년 후인 AD 67년,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는 자신의 광기로 일어난 대화재의 원인으로 신혼종교인 기독교에 책임을 돌린다. 집중들의 먹이가 되거나 불태워지며 극심한 박해를 받는 크리스천들 그리고 그들의 리더인 바울'은 네로'의 명령에 의해 감옥에 갇혀 사형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는 죽음의 문턱, 두려움 속에 점점 희망을 잃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바울'의 일생과 그가 얻은 지혜를 사도행전으로 기록하여 전하고자 깊은 감옥 속으로 숨어드는데...

CBS가 오는 10월 31일 개봉할 영화 <바울>은 제목과 같이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드러내는 영화다. 하지만 바울이 살아생전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듯이, 이번 영화는 바울이 죽기 직전 가장 노쇠하고 가장 꺾박 받을 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미국에선 지난 3월에 개봉해 박스오피스 8위의 좋은 성적을 냈고, 일반 관객들과 함께 보이도 좋은 명품 기독교 영화다.

사도행전과 디모데후서의배경 속으로!
영화의 배경은 바울이 죽었으리라 생각되는 AD 67년으로, 로마의 네로황제가 로마대화재의 범인을 크리스천과 바울로 지목했을 당시이다. 주인공인 바울은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로마의 성도들도 잡히는 즉시 길가의 벽에 묶여져 즉시 화형에 처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이자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감옥에 몰래 잠입한다. 바울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키고 하나님께 바울의 삶 전체를 통해 주신 소망의 증거들을 적어서 절망에 빠진 로마의 크리스천들과 나누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영화는 누가가 바울에게 글 남기기를 제안하는 데에서 시작해, 바울이 죽기까지를 생동감 있게 다루고 있다. 참고로 누가가 쓴 바울의 이 이야기가 신약성경 중사도행전이다.

영화로 구현해 낸 살아있는 성경말씀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들은 마치 성경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성경 속에서 들려오던 말씀이 그 당시를 잘 고증한 배경과 캐릭터들을 통해 살아 움직이기 때문이다.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도 시나리오가 성경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려고 수년간 철

저히 감수하고 수정했다.
또 주인공 바울과 누가, 그들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대사 속에도 성경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 등장한다. 성경말씀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사모하는 관객이라면 영화를 보고 도리어 성경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생생한 지 발견하고 말씀을 더 읽고 싶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영화는 영화라기보다도 '복음'을 들으며 간다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만큼 성경이 주는 감동이 영화 속에 풍성히 흘러넘치고 있다.

모든기독교인들, 그리고 비신자 전도에 추천
영화에는 바울은 물론 당시 핍박받던 초대교회의 모습도 나온다. 하지만 그들은 생사가 위태로운 순간과 깊은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그래서 이 영화를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그 중에서도 믿음의 핍박 속에 있거나, 외적, 내적으로 선한 싸움과 방황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영화를 본다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리라 기대된다. 또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와 주님을 소개하는 데에도 귀히 쓰임 받을 것이다.

아동문학가 김철수 장로 130번째 저서

독서치료동화집 《노란 우산》 출간



아동문학가 김철수 장로 (원간 아동문학 발행인)의 제130번째 저서인 독서치료 동화집 《노란 우산》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지난 5월30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3개월 동안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출간한 저서이다. 저자는 국내 최초로 문학을 통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교재를 소개 전남대학교와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활동과 사회적 기여도를 인정받아 제17회 대한민국향토문화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저자 김철수 장로는 전남 함평출생으로 지난 1981년 월간《기독교문화》지에서 공모한 제7회 기독교 아동문학상에 동시 〈새벽종소리〉로 입선하여 문단에 데뷔하여 1983년 《한국시학》 신인상 시 부문에 작품 〈진실살림〉이 당선되고 1984년 4월 (사)한국문인협회 기관지인 《월간문학》 신인작품상에 장작동화 〈구리장군군〉이 동화부문에 당선 본격적인 아동문학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김 장로는 등단 후 지금까지 130권의 저서를 출간하여 광주·전남지역의 아동문학의 선두주자로 전

국 유수문학지와 서울신문, 신동아 등에 작품을 발표 전남아동문학상, 전남문학상, 한국아동문학작가상, 한국기독교문학상, 한국글사랑문학상, 김영일 아동문학상, 천동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하고 그의 작품 《우산장수 할아버지》는 교육부 발행 중학교 국어교과서 1-1학기에 수록되기도 했다.
금번 출간된 독서치료 동화 집 《노란 우산》은 현대인들이 상실한 감성과 눈물을 통해 머리로 사는 세상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는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작품 속에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삭막한 현대생활 속에서 상실된 인간성을 되찾자는 간절한 바람과 주장을 담고 있다.

이현순 사모 수필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출간

수필, 시, 기도문, 간증 등 수록

창원순복음교회 권우석 목사의 아내 이현순 사모가 두 번째 수필집을 출간하였다. 이현순 사모는 이 책을 통해 ‘배우고 확산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 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양육 받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전했다.
특히, 교회학교에서 지나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었던 이현순 사모는 이 책에 말씀 QT와 기도문, 시 등을 담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함께 가길 소망하였다. 또, 만성고혈압을 고침 받고, 병원에서 포기할 병이 낫는 등 이현순 사모 주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간증도 함께 실려있다.
이현순 사모는 책에 있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독자들의 삶에 영적 회복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 주시길 기도하며, 또한 이 책의 수익금 전액은 창원순복음교회 성전건축 완공을 위해 하나님께 바친다고 강조했다.

※ 후원문의 T. 055) 237-5907, HP 010-2246-5905
※ 농협 821143-55-000262 (예금주 : 창원순복음교회)

제7회 선교사 및 목회자 초청 창조과학 콘퍼런스 개최

한국창조과학회(회장:한윤봉 교수)가 오는 10월 22일(월) 오후 12시 30분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남서울교회(회장부 목사)에서 ‘제7회 선교사 및 목회자 초청 창조과학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한국창조과학회는 특별강의 ‘창조신앙의 신학적 중요성’, 패널토의 ‘생명정보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내용으로 동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21세기 과학만능주의 시대에 만연된 진화론과 과학주의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신앙의 기초를 흔드는 시기에 전문가들을 통해 최신 과학자료로 창조의 신성과 능력을 전하며 선교와 목회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콘퍼런스를 기획,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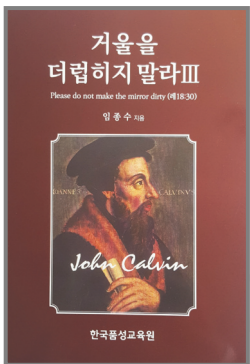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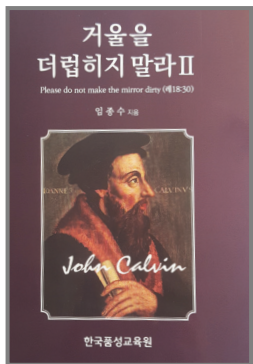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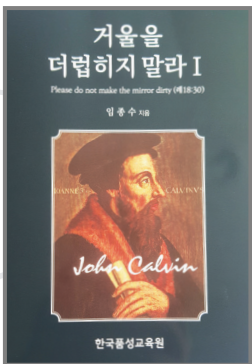
이어서 진행되는 세부 일정과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일시: 2018년 10월 22일(월), 12:30~21:00
* 장소: 남서울교회(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19길 36, http://namseoul.org)
* 등록: 1만원/1인(간식, 교재 제공)
* 참가신청: www.creation.or.kr
* 입금계좌: 우리은행 132-125115-13-201 (예금주: (사)한국창조과학회)
문의처 : 한국창조과학회 02-419-6465/ edu@creation.kr

구세군, 태풍 콩레이 피해 긴급구호

한국구세군(사령관 김필수)은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태풍 ‘콩레이’로 인해 수해 피해를 입은 영덕 강구항 일대를 찾아 긴급구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5-6일 사이 태풍 ‘콩레이’의 직격탄을 맞은 경북 영덕군은 주택, 도로가 침수돼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작물 침수를 당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구세군은 10월 11일 사랑의 밤차와 함께 가장 많은 수해 피해가 생긴 영덕 강구항을 찾아 무료 급식 활동을 펼치며 긴급구호를 진행했다. 구세군 경북지방(현령 조효정), 구세군조선반비(현령 광정희), 구세군사회복지부

(현령 박희범) 및 경상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가 함께 한 이번 급식 나눔에서는 구세군 자원봉사자 40여 명이 참여해 수해 피해 이재민을 도왔다.
구세군은 태풍 ‘콩레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 및 현장의 자원봉사자들 약 300여 명에게 소고기 육개장, 김치찌개 등을 제공하며 집에서 먹는 밥과 같은 따뜻함을 전했으며, 큰 피해로 낙담한 주민들이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에 주민들은 “이곳에서 먹는 가장 맛있는 식사”라며 고마움을 표했으며, 영덕군 관계자들도 구세군의 봉사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분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굿,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현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하고 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회

제8차 전국사모단합대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개회예배
설교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성령대강화
설교 총회장 임웅재 목사



폐회예배
설교 총무 신재영 목사

전원성전 및 성막센터, 물향기수목원에서



전국사모회장 윤금자 사모

교단 전국사모회(회장 윤금자 사모)는 지난 10월 15일(월)부터 17일(수)까지 2박 3일간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및 세계성막센터와 물향기수목원에서 제8차 사모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딸들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70여 명의 전국사모회 회원들은 교회 안팎으로 바쁘고 바빠야 할 일 등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다가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숲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사랑 나눔의 귀한 시간을 함께했다.

전국사모회 회원들은 첫날 오후 3시 30분 전국에서 온 70여 명의 회원들이 전원성전에 모여 먼저 하나님께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를 감사로 하여 개회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

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돌렸다.

조용목 목사는 시 57:7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의 확신’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현장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모들의 충성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상황 따라 변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바울의 확신이 안 되어 있으면 뿌리가 내리지 않은 나무와 같아서 바람이 불면 뿌리째 나무가 뽑히게 되지만 사도라, 목사, 아벳노고처럼 바울의 확신을 통해 흔들림 없는 신앙인이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전국사모회 윤금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사모단합대회로 아름다운 모임을 갖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심신의 휴식과 주의 사랑으로 전교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힘을 얻고 교단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소망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회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교단과 교회를 위해서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회원들은 2박 3일간의 대회 기간 동안 교단 총회장 임웅재 목사를 강사로 성령대강화 시간을 갖고 말씀충만, 성령충만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며,

특강과 세계성막복음센터 성막건축과 물향기수목원 관람 등의 시간을 갖고 은혜와 사랑, 성령충만과 축복의 시간을 함께했다.

이번 대회는 교단 총무 신재영 목사(세계전교회)를 강사로 폐회예배를 드리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국사모회 회원들은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교단과 임원진에게 감사드리고 이번 대회를 통해 활력을 얻고 더욱 교단과 교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다음에 또 만날 것을 기약하고 서로의 목양지로 향했다.



오른쪽부터 전국사모회장 ▲ 윤금자 사모, 총무 신영희 사모, 1부회장 김귀순 사모



제8차 전국사모단합대회

주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렘 33:3)

강사: 정책위원장 조용목목사 / 총회장 임웅재목사 / 교단총무 신재영목사
일자: 2018.10.15(월)~17(수) 2박3일 / 장소: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입장문 ①

에스더기도운동, “[한겨레신문] 규탄한다”

가짜뉴스 공장이라는 보도와 관련 조목조목 반박...법적 대응 밝혀

에스더기도운동본부(대표 이용희 교수)는 9월 27일자 한겨레신문 탐사기획팀의 『동성에 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은 에스더였다라는 보도와 관련 허위보도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에스더기도운동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한겨레는 한국내 대표적인 선교단체 중에 하나인 에스더를 ‘가짜뉴스 공장’으로 매도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혐오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스더와 이용희 대표가 마치 악의적인 페이크뉴스 공장인 것처럼 오인시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는 동성에 법제화를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을 말살시키려는 의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또 가짜뉴스, 댓글공작, 극우세력 등을 운운하면서 언론권력을 남용하여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처사로 볼 수 있다.”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9월27일자 한겨레신문 탐사기획팀의 에스더기도운동 관련 가짜뉴스를 규탄한다!”

한겨레신문이하 한겨레는 2018년 9월 27일자 1면에 『동성에 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은 에스더였다라고 하였으나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뉴스들을 낱말 보도하였다. 한겨레는 한국내 대표적인 선교단체 중에 하나인 에스더를 ‘가짜뉴스 공장’으로 매도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혐오를 드러냈다.

탐사기획팀 박준은, 김완, 변지민 기자는 “가짜뉴스들의 발원지는 에스더기도운동이라는 종교단체 누리집 게시판(공지사항)이었다”라고 하며, “에스더의 문제는 가짜뉴스다. 기독교판 가짜뉴스

는 기독교인의 적대와 혐오를 겨냥한 일종의 분노 증폭장치다. 행동하지 않는 ‘사이 보수’를 행동하는 보수로 이끄는 통로, 미끼 상품이 바로 가짜뉴스”라고 보도하여, 에스더와 이용희 대표가 마치 악의적인 페이크뉴스 공장인 것처럼 오인시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는 동성에 법제화를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을 말살시키려는 의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또 가짜뉴스, 댓글공작, 극우세력 등을 운운하면서 언론권력을 남용하여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처사로 볼 수 있다.

이에 에스더는 9월27일자 한겨레 뉴스의 왜곡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동시에 한겨레의 의도적인 표적보도 및 위중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알린다.

— 다 음 —

9월 27일자 한겨레의 보도는 왜 가짜뉴스인가?

1. ‘에스더가 만든 가짜뉴스들은 △메르스 에이즈 결합 슈퍼 바이러스 창궐 △동성애 합법화하면 수간도 합법화 △동성애 게이커피 제작 거부 미국인 1억6000만원 벌금 폭탄 △동성애 교육 항의 아바지 감옥행 등이다.’라는 한겨레의 보도:

허위 사실임. (구체적 사실과 출처가 명시된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

1) 메르스, 에이즈 결합 슈퍼 바이러스 창궐 우려 가가짜뉴스라는 한겨레의 보도:

“메르스, 에이즈 결합 슈퍼 바이러스 창궐”은 에이즈 관련 전문가(의사)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이며, 에스더가 만든 가짜뉴스라는 한겨레의 보도는

허위사실임.

한국일보는 2018.4.4일자 보도에서 “한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에 대해 내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두개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동시감염에 대한 가장 좋은 자료는 HIV와 간염과 같은 더 심각한 바이러스의 연구에서 나온다”라고 하였다.

* 출처 :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403/1171005

또한 국민일보 2015.2.15일자 보도는 “여러명의 성 파트너”로 섞인 ‘변종 에이즈 바이러스’ 발견... 공격성 강해 3년만에 에이즈 발병”이라는 타이틀 기사를 내보냈다.

* 출처 : http://news.kmbi.co.kr/article/view.asp?arid=0009151341

2) ‘동성애 합법화하면 수간도 합법화 된다는 것이 가짜뉴스라는 한겨레의 보도:

아래 뉴스에 의하면 유럽과 캐나다에서 수간이 합법화된 나라들이 있으며 수간매춘이 성행하는 나라들이 있음. 그러므로 동성애가 합법화될 경우 성적으로 더 자유로워져서 수간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2005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캐나다는 11년 뒤 2016년에 수간을 합법화하였다. (원문: Sexual acts with animals are now legal in Canada)

* 원문출처 : http://absoluterights.com/bestiality-wins-canada/

* 번역출처 : https://m.blog.naver.com/pshslar/220941882998

위헌 위법적인 국가인권정책(NAP) 독소조항 삭제 및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양성평등 이념의 이행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편향된 단체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 집회가 지난 10월 12일(금) 오전 9시에 법무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개최되었다.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하면서 2017년 10월에 만들어 공청회까지 가졌던 초안을 아무런 설명이 없이 폐기하고, 각 정부 부처가 추천한 단체는 참여시키지 않고, 법무부가 소위 코드가 맞는 단체만을 참여시켜, 목자부터 내용까지 대폭 수정된 NAP를 수립하였다. 목자와 내용이 대폭 수정된 NAP는 당연히 공청회를 다시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도 가지지 않고, 불과 6일(주말을 제외하면 4일)만 공개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받았다.

NAP에는 양성평등 이념의 이행헌법과 법률을 정면 도전하는 성평등 주장이 대폭 포함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독소조항들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해온 법무부 황희석 인권국장은 한국 기독교를 혐오 집단, 적폐세력 등으로 규정하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한겨레신문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짜뉴스의 생산자로 종교단체를 노골적으로 지목하였다. 이행헌법

과 법률을 위배하는 성평등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해온 정부가 이를 반대하는 한국 기독교를 향하여 가짜뉴스 프레임 싸우기를 통해서 재갈을 물리려는 공작이 아닌가 심히 염려된다.

이번 법무부 국정감사를 통하여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NAP의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동성에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가짜뉴스 프레임 싸우기를 통해 반대 의견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하여 심히 왜곡된 인식과 태도를 가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및 황희석 인권국장은 즉각 사퇴하기를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8. 10. 12

동성에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300개단체연합)

사설

북한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

북 외무상은 비핵화에 앞서 핵우산 제거라는 '미국'의 선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한·미 양국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모 든 문제의 출발점으로 보고, 제재에 초점을 맞춰왔다.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미국이 동맹 차원에서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제거'임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의 핵 위협 제거까지 요구한 으로서, 논리적으로는 미국 핵무기 폐기 또는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 여지까지 열어두었다.

태형철 김일성대 총장은 뉴욕 학술세미나 연설문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일방적 핵 포기'가 아니다'면서 사실상 미국의 핵 위협 제거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거해야 비핵화에 나설 수 있다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7일 방한해 한·미의 완전한 보조 일치(bolster)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미 북한식 탄발반입, 개성 연락사무소 철도 연결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제재하는 상황까지 도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져 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제재망을 피해 북한에 무언가를 해주려하는 조급증이 넘쳐나 보인다. 오랜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북한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인다. 몇 차례의 정상회담에서도 가시적인 무언가를 내놓은 것이 없다. 그런 데도 우리 정부는 다 된 것처럼 부산스럽기 그지 없다.

종전선언 역시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더라도 유엔군 사령부의 존재 이유를 앎에도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도 강요해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북한 핵 폐기는 저해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한다.

대북전문가들은 “비핵화 문제 이전에 남북경제협력 등 앞서가는 주장은 미국이나 유엔의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특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조치가 있어야 국제사회가 협조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도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켜낼 수 있다. 지도자들의 바른 판단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일천이백만 기독교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언론의 막중한 사명

언론의 의무는 진실 추구이다. 언론의 본질은 보도 내용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언론은 권력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또 언론은 뉴스를 포괄적이며 조화롭게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언론인들은 양심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일부 진보 언론들은 어떤가? 마치 기독교를 때리고, 해집는 것이 유행처럼 되고 있고 그것 자체가 가짜라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일단 때리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

이는 일부 언론들이 현재 권력을 잡은 세력들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과 잘 협의하고 공조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잘못된 판단일까? 언론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힘의 유혹에 빠지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 선교 단체를 ‘가짜뉴스 공장’이라고 보도하고 그에 대한 검증은 못하게 된다면 이는 이미 언론으로서의 자질이 결여된 것이니, 반드시 그에 응당한 책임을

을 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가 판을 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신들의 견해와 맞지 않는다고 아무 것이나 가짜 뉴스로 몰아가서도 안 된다. 또 자신들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면서 ‘내로남불’ 하는 언론은 더 이상 이 땅에 설 수 없도록 국민들의 경계가 필요하다.

가짜 뉴스를 양심세워 기독교를 넘어뜨리면,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언론들은 착각에 빠졌다. 기독교는 외부적 탄압이나 압력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과 교회가 증명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현 상황, 일부 진보 언론들의 악의적 ‘~카더라’ 식의 언론 보도와 그에 대한 기독교계의 정당한 주장도 ‘혐오’와 ‘차별’로 몰아가는 보도 내용들을 매우 우려스럽게 주시하고 있다.

한국교회헌신회는 한국교회가 이것이 결국 ‘종교와 의 전쟁’으로 내몰려서, 국가와 사회적 불행으로 가는 길이라고 판단될 때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정책위원장 조종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배성환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서천군
SEOCHON COUNTY
문화관광사업

서천군청 (문화관광▶문화탐방)
www.bible1816.modoo.at
1816bible@daum.net



한국
최초

성경전래기념관

Korea's First Encounter with the Bible: The Seochon Bible

성경전래! 조선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망!!

한국최초 성경전래의 영향



1816년 9월 5일 2척의 영국함대가 서해안 일대의 해도 작성을 하던중 '진에' 정박한다. 알렉산더의 함장 맥스웰을 통하여 청사 조대복에게 한국최초로 성경이 전달된다.

그 당시의 일들이 책으로 엮어져 서구사회에 조선이 소개되는 접착점이 되었다.

- 그 당시 받은 성경은 1611년(초판) 킹제임스 성경임
- 최초의 성경전래가 한국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됨
- 이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적잖은 원동력이 되었다.

1F 전시관

- ① 항해의 체비 서해안 항해의 목적과 함선, 그리고 서천 마량진
- ② 바이블로드의 서막 성경 전래의 전반적인 내용을 극화한 애니메이션 상영
- ③ '이방인과 알 수 없는 언론' 머리 맥스웰 함장과 바실로, 마량진 청사 조대복과 비인 한강 이승열 일화와 만나다.
- ④ '물집으로 이루어진 소동' 함선에서의 에피소드

2F 전시관

- ⑤ 세계적 보물인 킹 제임스 바이블 진본 전시 (1611년 초판)
- ⑥ '한국성경 변천사'
- ⑦ '성경책 만들기'
- ⑧ '도토존'

3F 카페테리아

카페테리아·특산물 판매장

서천 최고의 전망과 맛있는 원두커피 등

4F 다목적강당

예배실·세미나·레크레이션 등
입자가를 통하여 바라보는 또다른 세상

바다위에 입자가!!!
카메라에 담아 보세요. ^^

관람시간

하절기 : 3월~10월 (10:00~18:00)
동절기 : 11월~2월 (10:00~17:00) 폐장 30분전 입장마감

휴관안내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수요일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관)

문의

(041)951-1816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 89-16 (서면 마량리 137번지)

관람료

성인 2,000 / 청소년·군인 1,000 / 어린이 600
성인 1,500 / 청소년·군인 600 / 어린이 400 (단체 20인 이상)

후원안내

농협 351-0968-7961-13
(한국최초성경전래기념관)



(사)한국최초성경전래 사업회



홈페이지: www.ucts.org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에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8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에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소명)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소명)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에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agtc.or.kr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에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8학년도 제2학기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 원서접수: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02)2677-0692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02)2677-0692

http://agpgs.aogk.org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에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8학년도 제2학기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에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50,000원
- ②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02)2677-0692

- 원서접수: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02)2677-0692